

제공일자	2009. 7. 20 (월)	담당자	황진태 부연구위원	
홍보담당	김세환 수석(3775-9051)	연락처	3775-9024	총 2 매

제목 : 변액 초회보험료 추이 및 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보험연구원, “주식시장 활황과 저금리기조 지속시 변액보험시장 회복 기대”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의 황진태 부연구위원은 『변액 초회보험료 추이 및 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테마진단(보험동향 2009년 여름호)에서 “보험회사들도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는 “변액보험상품은 거시경제변수 중에서도 특히 주가, 금리, 물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생명보험회사별 변액 초회보험료 및 거시경제변수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주식시장이 활황인 경우 변액보험 가입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주가가 상승세에 있을 때 보험소비자는 변액보험 적립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어 변액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변액보험 가입에는 시차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보험소비자의 변액보험 가입이 주식시장의 침체 또는 활황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고보다는, 주식시장의 현황을 관찰한 후 변액 보험가입 유무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금리가 낮을 경우 변액보험 가입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금리가 낮아질 때 장기성을 띄는 정기예금이나 채권상품보다는 상대적인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변액보험상품으로 보험소비자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물가상승률이 높은 경우 변액보험 가입이 줄어들는데, 이는 금융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질가치 하락으로 인해 보험소비자의 투자심리가 약화되어 변액보험 가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과 더불어 주가의 재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저금리 정책이 지속된다면 변액보험 시장의 회복가능성은 예상보다 빠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현재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최근 경기회복 조짐과 함께 얼마나 더 지속될 지는 미지수이며, 향후 금리상승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험회사들은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변액보험은 생명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이고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보험회사들은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모니터링에 대한 초점을 단지 자산운용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변액보험상품의 판매 측면에도 맞출 필요가 있음도 강조하고 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